

아들과 딸의 男性-女性性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養育態度次元*

李 芸 英 · 車 載 浩

梨花女子大學校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본 연구는 R.R. Sears와 그의 同僚들이 보고한 바, 父母의 養育態度가 制約的인 수 록 아이의 성격이 女性化된다는 사실의 Sears등이 사용한 面接者의 評定이 아니고 어버이自答의 養育態度檢査를 통해 확인하려 했다. 국민학교 4,5학년 어린이 남자 190명, 여자 160명에게 男性-女性性檢査를 실시하고 男女집단별로 高點群과 低點群으로 나누어 그들 어머니에게는 子女養育態度檢査와 成人用 男性-女性性檢査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어머니變因들의 자료를 아이성과 男性-女性성을 두 獨立變因으로 한 2×2設計에 따라 男性的 學生의 어머니 69명과 女性的 學生의 어머니 79명의 養育態度檢査點數를 分析한 결과 男學生은 어머니가 溫情하면 女性的으로 되며 女學生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過保護(干涉)하면 女性的이 됨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養育과 아이의 女性性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一次的 同一視說이나 Sears 등의 活動制約說은 적어도 어머니의 경우에는 지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새로운 說明을 시도하였다. 예상외로 男學生의 어머니는 女學生의 어머니보다 더 男性的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동기간 중에 男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Sears와 그의 一派는 性役割(sex role) 發達에 서의 個人差를 說明함에 있어 父母의 養育이 아이에 性的·攻擊的 行動에 대하여 制約的인 수 록 어린이의 性格은 女性化된다고 보았다(Sears, Rau, & Alpert, 1965b).

Sears의 연구에 의하면 子女의 女性化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의 制約性이라고 한다(Sears, 1965a, p. 153). 이들의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가장 女性的인 女兒의 어머니가 溫情的의 아니었고 또 가장 男性的인 男兒의 아버지가 溫情的의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일 아들이나 딸이 男性的의 되고 또는 女性的의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이 同性의 어버이를 닮느냐, 즉 얼마나 同性의 어버이와 同一視하느냐에 달렸다

만 아들은 아버지가 溫情的으로 대할수록, 딸은 어머니가 溫情的으로 대하고 훌륭한 본을 보여 주었을수록 각각 男性化되고 女性化되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男性的인 아들의 아버지가 가장 女性的인 딸의 어머니는 溫情的의 아니었다. 男性-女性性(masculinity-femininity)이 同性의 어버이를 닮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을 Sears 등은 一次的 同一視模型(a model of primary identification)이라고 부른다. Sears 등은 그들의 연구결과가 一次的 同一視模型에 否定的인 것이라고 指摘하고 대신 男性-女性性的의 個人差를 낳게 하는 것은 父母의 養育의 許容性에 달렸다고 본 것이다.

Sears 등(1965b, p. 195)이 말하는 制約이란 性的·攻擊的 行動의 制裁 또는 抑壓으로서 이것

* 本研究論文은 先著者가 梨花女子大學校에 提出한 碩士論文(李芸英, 1974)에 立脚한 것이다.

은 男兒전 女兒전 모두 女性化시키는 效果를 가졌다고 보았다. 制約이 아이를 女性化시키는 機制로서 制約이 男兒에서는 活動의 抑制과 女兒에서는 皮動性的 助長을 들었다. 男兒에게서는 男性的인 아이보다 女性的인 男兒가 活動을 덜하므로 이런 機制는 적어도 男兒의 경우 쉽게 납득이 가는 것이나 女兒의 경우에는 女性的인 아이가 더 社會的으로나 身體的으로 活動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설명으로서 부적당하다. 그래서 Sears 등은 女兒의 경우 父母의 制約은 딸에게서 男性的인 活動을 抑壓한다고 보았다. Sears 등(1965b)의 이러한 說明을 活動制約說이라고 부르겠다.

活動制約說이 成立하려면 (1) 왜 아버지의 制約이 어머니의 制約보다 더 아이의 女性化에 작용하며 (2) 왜 딸에게는 抑壓되는 活動이 모든 活動이 아니라 男性的活動에 국한되느냐,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Sears 등(1965b)은 적어도 後者에 대해서 說明을 試圖하는데 Kohlberg(1966)의 認知發達的 同一視 理論을 借用한다. 이 說에 의하면 아이는 일찍부터 자기에 性籍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性籍에 대한 아이의 인식이 周邊影響에 따른 아이의 行動의 變化方向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女兒의 경우 자기가 女兒이며 女兒는 어떤 行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非強化나 非許容 또는 罰이 있게 되면 이것은 女性다운 行動을 하라는 徵左로 보고 女性다운 行動을 길러나가는데 加一層 노력하게 된다. 이 說明의 가장 核心的인 想定은 아이가 자신의 性籍을 인식하고 있고 이 인식이 아이의 行動의 變化方向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說에 의하면 女兒는 女性的으로만, 男兒는 男性的으로만 變할 수 있고 女兒가 男性化된다는가 男兒가 女性化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Kohlberg의 學說은 男性-女性性的의 個人差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것의 性間差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나 性內個人差를 說明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性籍의 인식의 明確性 또는 安定性에 個人差를 想定하는 길이다. Sears 등은 Kohlberg說을 借用하되 그것을 個人差를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個人差는 父母의 許容(制約)的 養育의 差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그들의 活動制約說이 成立하도록 하기 위하여 Kohlberg의 認知發達的 同一視學說을 借用하는 것이므로 이 同一視說도 活動制約說의 一部로 간주해서 活動制約說을 評價해야 한다.

Sears 등(1965b)은 制約, 특히 아버지의 制約이 아이를 女性化 시킨다는 사실 외에 男性的인 아들의 어머니는 責任感 있게 그리고 獨立하기를 바랐고, 적어도 한 測定値에서는 보다 溫情的이라는 判定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男性的인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良心을 갖기를 바랐다.

Sears 등은 父母와 그들의 아이의 面接과 실제 相交의 관찰을 통하여 얻은 기록을 다른 연구자가 評定尺度에 評定한 것을 자료로 삼았다. 이런 研究方法에서는 豐富하고 상당히 具體的인 場面에서의 父母나 아이들의 反應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것이 어떤 研究者라는 사람의 主觀的인 判斷에 의하여 測定値로 轉換되었다는 것은 비록 그 判斷자가 경험이 있고 客觀的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여러 다른 養育次元을 精確히 구별해서 判斷할 수 있었는지가 의심이 된다. 물론 그 判斷자가 자기 나름대로 몇개의 次元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들 次元 모두가 과연 獨立的인 次元인지 如否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말한 Sears 등(1965b)에 적용하면 그들이 發見한 制約이란 養育次元이 과연 檢査問項의 要因分析으로 析出해 낸 制約이란 次元과 같은 것인지 여부가 不分明한 것이다. 본연구는 이러한 難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養育態도와 아이의 男性-女性性間的 關係를 보다 信賴롭고 客觀적인 方法을 통해 검토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본연구에서는 Sears 등과는 달리 어머니 自身이 答한 養育態도檢査點數로 어머니의 養育態도를 測定했다. 또 한개의 養育次元이 아니라 몇개의 要因純粹한 養育態도次元檢査點數를 아이의 男性-女性性과 相關시키므로써 Sears 등이 混同했는지도 모르는 養育次元間에 區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養育態도와 男性-女性性的의 測定에 대해 약간 언급해야 하겠다. 養育態도次元의 研究는 Schaffer, Roe, Becker 등의 여러 연구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Becker(1964)가 要因分析을 통해 析出한 (1) 溫情-冷情(warm-hostility), (2)

制約—許容(restrictiveness-permissiveness), 및 (3) 안달—泰平(anxious emotional involvement-calm detachment)의 3개 次元이다. 여기서 溫情이란 愛情的 受容의 態度를 말하며 肯定的으로 理解해 주고 兒童中心의이고 자주 說明을 해 주고 訓育에 體罰대신 賞을 사용하고, 妻의 경우 男便을 비판하지 않는 態度를 말한다. 溫情次元은 家庭雰圍氣와 같은 背景的 要因에 해당한다. 한편 制約次元은 訓育과 같은 구체적인 行動次元이며 셋째 次元인 “안달”이란 높은 情緒的 關與, 응석받이, 保護, 아이에 대한 지나친 뒷따라지, 등을 포함한다. 이보다 앞서 Roe(Roe & Siegelman, 1963)는 父母의 養育態度要因分析에서 愛情—拒否(love-rejecting), 非干涉—強要(casual-demanding), 및 關心—無關心(attention)의 세次元을 얻었는데 이것은 Becker의 3次元과 비슷하다. 이 보다 앞서서 Schaefer(1959)등 다른 사람들의 要因分析이 있는데 最小 溫情—冷情과 統制—自律의 두 次元이 나왔다. 이들 중 後者는 앞서 말한 Roe와 Becker등의 연구에서 다시 두개의 次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Roe의 경우에는 非干涉—強要和 關心—無關心으로, Becker의 경우에는 制約—許容과 안달—泰平으로 分化되어 나왔다.

우리나라에는 父母用 養育態度檢査가 두어개 있기는 하나 어느 것도 要因分析이나 統計的 問項分析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고 주로 임상진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본 연구를 위해 새로 要因別로 된 養育檢査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해 쓴 養育態度要因은 溫情—冷情, 過保護—自任, 許容—制約, 그리고 안달—泰平의 4개 次元이다.

위의 4개 養育次元 중 過保護—自任은 Roe의 弱要—非干涉과 비슷하고 許容—制限은 Becker의 同名의 次元과 비슷하다. 前者는 주로 父母의 아이에 대한 強壓的 態度와 관계가 있고 後者는 아이의 衝動的 統制 내지 制御와 관계가 있다.

한편 사람의 性格次元으로 男性—女性性을 처음 測定한 것은 1922년으로 Terman에 의해서였다(Terman & Miles, 1936). 50餘년의 測定역사를 갖고 있는 이 잘 알려져 있는 次元이 아

직도 잘 定義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의 測定에는 여러 가지 未解決 問題가 남아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1) 問項選定基準은 問項反應의 性間差에 두어야 한다는 가정, (2) 男性—女性性이란 構成概念이 兩極的 次元이라는 가정, 그리고 (3) 이 構成概念이 單一次元이라는 가정들로서 이런 가정 모두가 現在까지 만들어진 男性—女性性尺度製作에 전체가 되어 왔지만 이런 가정은 그 妥當性을 다시 물어볼 餘地가 있는 것이다(Constantinople, 1973). 여기서 만든 成人用과 어린이용 女性性檢査는 첫째 가정을 하지 않았고 본연구에서 사용한 女性性檢査는 모두 兩極的 單一次元을 念頭에 두고 만든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女性性이 아니라 男性性—女性性的 檢査라고 불러야 하나 앞으로는 부르기 쉽게 다만 女性性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본연구는 아버지의 자료를 수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 어머니의 養育態度만을 測定했다. Sears등(1965a)이 아버지의 制約이 어머니의 그것보다 더 強力한 女性化 效果를 갖는다고 보고했으므로 父母 兩者를 다 對象으로 해야만 Sears등의 活動制約說을 완전히 검증할 수 있으며 어머니 資料만으로는 이들의 說의 公正한 檢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男性—女性性的 發達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役割도 그 자체로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같이 보낸다는 점에서 Sears등이 가르킨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役割에 상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연구의 결과는 (1) 아이의 男性—女性性 發達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役割을 밝히고, (2) Sears등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다 正確한 養育次元測定具로 補完해주며, (3) Sears 등(1965b)의 여기서 活動制約說이라 부른 學說을 어머니에게서나마 檢證하게 해줄 것이다. 본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가 사용하는 方法이 Sears등의 그것과 약간 다르므로 그들의 결과와 相違한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밖에도 文化的 差異 때문에 相違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結果가 선행한 美國研究들과 많이 다르면 그 해석은 애매해진다. 한편 단일 結果가 先行研究의 그것과 一部나마도 合致된다면 우리는 그런 關係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方 法

被驗者. 被驗者로 국민학교 학생 350명과 그들의 어머니 중 148명을 사용하였다. 국민학교 학생은 서울 흥익국민학교 4,5학년생으로 조사할 380명중 자료를 쓸 수 있었던 것은 350명분이었으며 이 가운데 160명은 여학생, 190명은 남학생이었다. 어머니 집단은 학생들은 女性집수에 따라 점수분포 上(男性的) 25%에 속하는 학생들과 下(女性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어머니 각각 87명(男學生의 어머니 47명; 女學生의 어머니 40명)과 87명(男學生의 어머니 47명; 女學生의 어머니 40명). 총 174명 중 자료가 완전한 148명의 어머니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중 69명은 上點(男性的 集團의 어머니였고 나머지 79명은 下點(女性的)集團의 어머니들이었다.

어머니용 질문지의 구성. 어머니에게 실시한 질문지는 어머니 자신의 養育態도와 女性性을 재는 검사문항들과 기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 父母用 養育態度調査. 우리나라에서 당시 연구용 또는 임상용으로 쓰이고 있던 여러 검사들 중 養育態도와 관계있는 문항들을 뽑아 같은 형태의 문항과 選肢로 고치고 새로 만든 문항을 첨가하여 모두 237개의 예비養育 問項을 만들었다. 이들에 自我概念문항 102개, 女性性문항 17개, 그리고 子女觀문항 12개를 합쳐 총 368개의 문항으로 된 自答型 豫備檢査를 만든 다음 이들을 100명의 主婦들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렇게 얻은 자료를 비슷한 내용의 문항끼리 묶은 問項束(모두 38개)별로 점수를 내어 이들을 變因으로 要因分析한 결과 養育變因으로는 (1) 溫情—冷情, (2) 過保護—自任, (3) 許容—制約 그리고 (4) 안달—泰平의 4개가 抽出되었다.(이 要因分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들 要因에 대해 가장 相關이 높은 問項을 골라 이들을 上記 4개要因을 재는 檢査로 삼았다. 각 要因檢査의 대표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溫情—冷情(36문항):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권한을 준다(+); 자녀를

집안식구 앞에서 자주 칭찬한다(+);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내준다(+).

過保護—自任(27문항): 나는 아침마다 아이들의 시간표대로 책을 찾아준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던 아이들에게 강제로라도 시킨다(+); 아이들이 내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막 욕을한다(+)

許容—制約(29문항): 나는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한다고 믿는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준다(+);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친구를 사귀도록 한다(+); 자녀에게 어떤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자주 이야기 한다(-).

안달—泰平(31문항): 아이들이 필요한 학습품은 아이들이 콜라서 사게한다(+); 아이들의 예외 규칙 공부에 대하여 심하게 군다(+); 옷을 벗고 입지 않으려고 할 때는 꼭 입힌다(+); 학교에서 자녀가 어떻게 노는지 자주 물어본다(+).

(2) 父母用 女性性檢査. 어머니의 女性性을 재기 위한 檢査로 自作의 17개 문항을 만들어 上記 要因分析에 포함시켰던 바 이 變因은 獨自의 要因으로 나타났고 이것들 외에 다른 問項束도 이 要因과 負荷가 높은 것이 있어 이들을 모두 합쳐서 39개 문항으로 된 父母용 女性性檢査를 만들었다.

어머니용 질문지에는 모두 162개의 검사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檢査별로 그 수를 보면 溫情 36개, 過保護 27개, 許容 29개, 안달 31개 그리고 女性性(어머니용) 39개였다. 각 문항은 한개의 行動記述과 3개의 選肢(흔히 있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로 되어 있고 配點은 選肢에 따라 3점, 2점, 및 1점으로 했다.

어린이의 女性性檢査. 豫備검사는 본 연구를 위해 自作한 17개의 문항과 한국판 MMPI(陳渭教와 金享立, 1971)에서 취한 43개의 문항을 합쳐 총 60개의 문항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국민학교 학생 240명(남여 각 120명)에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問項分析을 하였다. 각 問項에 대한 反應(네, 아니요)을 性(男, 女) 基準과 總點基準에 相關시켰는데 總點基準과의 相關은 男·女 集團에 따로 算出했다. 따라서 각 問項은 세번 基準에 대하여 辨別檢査를 받은 샘플에(한번은 男女를 구별하기 위해 두번은 각 男子와 女子集團에서 總點 上·下群을 구별하기 위해), 이들 세번

의 相關에서 四類相關係數(ϕ)가 두번이상 .25보다 컸고 性基準의 辨別에서 ϕ 가 零이 가깝지 않은 것을 選拔하여 모두 17개의 問項을 얻었다. 이에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Gough, Chun, & Chung, 1968)의 女性性尺度(FeScale)의 38개 문항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에게 적합한 9개를 선정하여 모두 26개 문항으로 된 어린이용 女性性檢査를 만들었다. 이 檢査問項은 모두 2개의 選肢(네,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고 男性反應을 하면 1點 女性反應을 하면 0點을 採算하게 되어 있다. 이 檢査는 兩極型 男性—女性性檢査로 주요 問項內容으로는 恐怖에 대한 敏感度, 審美的 趣味나 態度, 攻擊 行動등을 主軸으로 하는 것이었다.

節次. 흥익국민학교 4학년 3개 학급과 5학년 3학급학생에게 학급단위로 담당교사가 어린이용 女性性檢査를 실시하고 회수된 檢査지를 先著者가 男女別로 점수분포를 내고 각 분포에서 上下 각 25%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이들 선정된 上·下點數群의 어린이들의 담임교사는 이들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용 檢査지를 실시했다. 이 檢査지를 실시하는 요령은 담임선생이 해당 학생을 개별적으로 만나 집에 이 檢査지를 가져가 어머니로 하여금 응답하여 완성된 檢査지를 다시 학교에 가지오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 담임교사는 이 檢査지가 반드시 어머니 자신의 손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設計와 資料分析. 연구설계는 아이의 女性性에 미치는 어머니의 養育變因과 기타 變因의 효과를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이變因과 어머니變因간의 상관관계를 보민 되는 것이다. 그런데 理論上으로는 아이 變因은 從屬變因이고 어머니變因들이 獨立變因이되는 것이나 연구설계상으로는 아이變因을 獨立變因으로 하였다. 즉 어린이의 性(男, 女)와 性格(男性格, 女性格)을 두 獨立變因으로 하여 이들에 따라 어머니의 養育變因이나 女性性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설계를 하였다. 따라서 설계는 2(아이性)×2(아이의 女性性)설계이고 이런 設計下에 어머니變因들(모두5개) 하나 하나에 대해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처리는 獨立變因의 主效果와 相互작용(相作)效果를 보기위해서는 變量分析을 사용하였고

어린이 性內에서의 어린이 女性性的 效果(單純效果)를 보기 위해서는 t 檢證法을 사용했다. 모든 計算은 t 檢證만을 제외하고는 電子計算器를 동래서 했다.

結 果

원래 174명의 어머니에게 檢査지를 배포했던 것이나 완전한 자료가 회수된 것은 148명뿐이어서 이들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탈락자의 수를 보면 上點(男性的)集團에서 18명(87명 대상 어머니중), 下點(女性的)集團에서 8명(87명 대상 어머니중)이 탈락되었는데 이런 탈락자는 모든 問項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때문에 생긴 것이며 자료의 回收率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 어머니의 養育態度變因과 아이의 女性性간의 관계.

이 關係를 보고 위에서는 앞에 말했듯이 어린이성과 어린이女性성을 獨立變因으로 한 變量分析과 어린이單性內에서의 어린이女性性點數 上·下集團간의 어머니變因의 差의 檢證을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개의 獨立變因 또는 分類變因중에서 어린이의 性變因은 본연구의 가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본연구가 男學生과 女學生集團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性次元에서의 一般化정도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린이의 性을 變因으로 취급한 것이다. 즉 이 變因을 獨立變因(또는 分類變因)으로 명하므로써 어린이성과 女性性간의 相作效果(interaction effect)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溫情變因의 變量分析결과가 表 1에 요약되어 있다. 表 1에서 보면 相作效果만이 有意한데 그 內容을 보면 表 2와 같다. 表 2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의 女性性的 單純效果는 男學生集團에서만 有意했다. 이 效果에 의하면 男學生의 경우 어린이가 男性的일 수록 어머니는 溫情的이다. 이 單純效果가 그림 1에 나와 있다.

過保護變因의 變量分析 결과를 요약하면 表 3과 같다. 表 3에서 相作效果가 약간 보이나 有意水準에는 미치지 못하였다($F=2.99$; $df=1, 114$; $p<.10$). 따라서 어린이의 單性集團에서의

表 1. 어머니 溫情點數의 變量分析 結果

變散源	平均自乘	自由度	F	p
全體	70.199	147		
性(A)	118.326	1	1.730	.187
女性性(B)	34.397	1	.503	.514
A×B	318.551	1	4.658	.031
集團內	68.388	144		

表 2. 네 어린이 集團에서의 어머니 溫情點數의 平均値

어린이집단	男性的	女性的	差	p
男	86.83*	82.91	+3.92	<.03
女	85.68	87.66	-1.98	—
全體	86.25	85.28		

* 높은 점수일수록 溫情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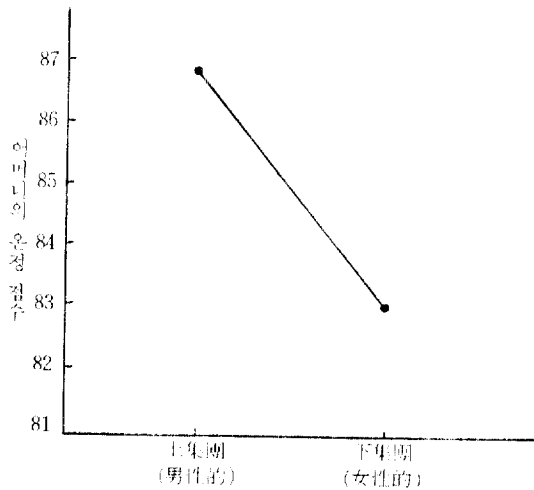


그림 1. 아들의 女性性的 함수로 본 어머니의 溫情點數

表 3. 어머니 過保護點數의 變量分析 結果

變散源	平均自乘	自由度	F	p
全體	50.287	147		
性(A)	9.230	1	.185	.671
女性性(B)	64.817	1	1.302	.254
A×B	49.703	1	2.999	.082
集團內	49.784	144		

어린이女性性的 單純效果를 알아 보았더니 表 4와 같이 되었다, 이에 의하면 어머니의 過保護

表 4. 네 어린이 集團에서의 어머니 過保護點數 平均値

어린이집단	男性的	女性的	差	p
男	45.26*	44.57	+ .69	—
女	42.74	46.09	-3.35	<.01
全體	44.00	45.33		

* 點數가 높을수록 過保護(干涉)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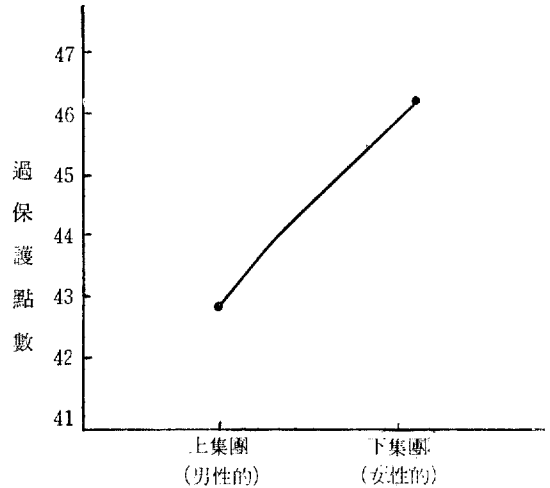


그림 2. 딸의 女性性的 함수로 본 어머니의 過保護點數

점수는 男學生의 경우 어린이의 女性性점수와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女學生의 경우에는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가 過保護일수록 딸은 女性的으로 된다. 이런 單純效果가 그림 2에 나와 있다.

어머니의 “안달”점수를 變量分析해본 결과는 表 5와 같으며 어린이性的 主效果, 어린이의 女性性的 主效果, 그리고 이들의 相作效果가 모두 的의없는 것으로 나왔다.

어머니의 許容點數도 變量分析한 결과 (表 6) 여기서도 어느 效果도 有意한 것이 없었다. 다만 어린이의 女性性的 主效果가 약간 나타나는 경향이 보였다($F=2.28; df=1, 144; p<.15$). 이 효과에 의하면 男性的인 아이의 어머니가 女性的인 아이의 어머니보다 더 許容的인 養育態度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示唆해준다.

이상에서 본 어머니의 養育變因과 어린이의 女

表 5. 어머니 “안달”點數의 變量分析 結果

變散源	平均自乘	自由度	F	p
全體	63.536	147		
性(A)	67.528	1	1.060	.306
女性性(B)	46.713	1	1.733	.602
A×B	50.492	1	.792	.622
集團內	63.716	144		

表 7. 어머니女性性點數의 變量分析 結果

變散源	平均自乘	自由度	F	p
全體	57.770	147		
性(A)	216.394	1	3.844	.049
女性性(B)	133.726	1	2.376	.121
A×B	36.629	1	.651	.573
集團內	56.288	144		

表 6. 어머니 許容點數의 變量分析 結果

變散源	平均自乘	自由度	F	p
全體	25.623	147		
性(A)	7.936	1	.309	.586
女性性(B)	58.632	1	2.282	.129
A×B	.142	1	.006	.939
集團內	25.693	144		

表 8. 네 學生集團에서의 어머니女性性點數 平均值

어린이집단	男性的	女性的	全體
男	75.34*	74.43	74.89
女	73.91	71.00	72.46
全體	74.63	72.72	

* 點數가 높을수록 男性的이다.

性性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네개의 養育變因중 어린이의 女性性과 관계를 보인 것은 溫情과 過保護뿐이며 이들도 아들·딸에게 一律적으로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性에 따른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溫情은 아들의 男性化和 관계있지만 딸에게는 관계가 없다. 또 어머니의 過保護는 딸을 女性化시키지만 아들의 性格과는 관련이 없다. 원래의 主假說은 어머니의 許容性이 어린이의 男性化和 관계있다— 뒤집어 말하면 어머니가 制約的이면 어린이가 女性的으로 된다—는 것이었는데 위의 결과에 보면 그런 관계가 약간 보였으나 有意한 결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2) 어머니의 女性性變因과 어린이 變因과의 관계

원래 이 관계는 별다른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나 變量分析 결과 뜻밖에 어린이 性의 主效果가 有意한 결과를 내는 반면 어린이 女性性은 약간의 傾向은 있었으나 有意한 主效果를 내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表 7에 나와있다. 4개 學生集團에서의 어머니女性性點數의 분포를 보면 表 8과 같다. 이에 의하면 男學生의 어머니가 女學生의 어머니보다 더 男性的이다. 또 有意하지는 않지만 男性的인 아이의 어머니는 女性的인 아이의 어머니에 비해 보다 男性的인 경향이 있었다.

3) 그 밖의 相關關係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수집된 어린이 380명 전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出生順序와 어린이의 女性性간의 관계를 알아 보려했다. 불행히 동기간의 性을 못지한 絕對出生順의 정보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次善策으로 學生性별로 男學生의 경우 長男의 部率이 어린이 女性性點數 區分(上, 中, 下群)에 따라, 또 女學生의 경우 長女の 部率이 女性性點數 區分(上, 中, 下群)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았으나 的의있는 差異를 발견할 수 없었다. 宗教分布도 어린이의 性과 女性性에 따른 學生 區分(2×2)별로 差異를 발견할 수 없었다.

論 議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留意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 아버지의 養育變因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Sears(1965 a)가 아버지의 許容性여부가 아이의 女性性 形成에 어머니의 그것보다 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사실에 비추어 Sears의 活動制約說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아버지의 자료 없는 Sears의 이 見解를 비판할 기반을 대부분 상실하는 것이다.

하지만 Sears는 活動制約說을 내세우면서 비록 자료는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켰

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보았다(Sears *et al.*, 1965b). 그러므로 본연구의 결과로 어머니에 대해서만이라도 活動制約說의 妥當性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우선 活動制約說이 예언하는 것은 어머니의 許容性이 아이의 男性化傾向과 상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 같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들 딸 모두에서 그런 相關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한가지 許容變因의 결과중 Sears의 主張을 약간 지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許容이 비록 有意하게 아이의 女性性和 相關을 갖지는 못했지만 약한 相關傾向이 豫想된 方向으로 있었으며 이런 相關傾向이 아들과 딸에서 똑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들과 딸에서 어머니變因과 아이變因간의 상관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 것은 許容(養育)變因뿐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머니 許容과 아이의 女性性간에 有意한 相關이 없었으므로 Sears의 活動制約說은 적어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Sears 등(1965b)이 否定한 一次的 同一視說(the theory of primary identification)는 본연구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說을 따르면 同性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溫情의으로 대해주면 아이가 어머니의 性에 맞는 性格을 띠게 된다. 본연구에서는 同性의 어미이—아이관계는 어머니와 딸간의 관계뿐인데 어머니의 溫情도와 딸의 女性性간에 상관이 없었다.

Sears 등(1965b)의 결과와 본연구의 결과가 一致하지 않는 이유로 許容次元의 操作定義의 差를 생각할 수 있다. Sears등에서 許容이란 흔히 말하는 뜻의 許容이 아니라 性的・攻擊的 行動의 制約을 말하는 것이었다. 본연구에서는 許容次元이 制約要素를 분명히 포함하나 性的・攻擊的 行動의 制約에 대해 明白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問項內容을 보아 알 수 있었다. 또 한가지 결과에 不一致를 가져올 수 있는 要因으로 文化的 差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에서는 文化差가 어떠한 方向으로 結果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더 할 말이 없다.

活動制約說이 지지를 못받은 이상 다른 說明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여기

서언은 결과와 一致하는 연구결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본연구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溫情과 아들의 男性化와의 連關性에 대하여 보면 이것은 Sears등(1965b)도 보고 한바 있다. 보다 男性的인 아들의 어머니는 따뜻하다는 평정을 받았다. 또 女性的인 男兒의 어머니는 禁制的이고 非能率的이며 아이에게 자유를 안주고 성숙할 誘引刺戟을 주지 않는다(Sears, 1963, p. 62). 또 Terman과 Miles(1936, pp. 223-224)의 자료에 보면 (1) 아버지가 死亡 또는 6歲前 家出로 偏母술하에 자랐을 때 가장 男性的이고 (2) 偏父 술하에서 자랄 때는 그 다음이고 (3) 兩親이 모두 사망한 孤兒일 때 가장 女性的이었다. 즉 홀어머니 밑에 자라는 아들이 홀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들보다 더 男性的이다. 女兒의 경우에는 위에 말한 관계가 덜 뚜렷했다. 위의 관계는 父母의 重要性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특히 어머니의 아들의 성격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本研究에서 어머니의 溫情이 아들의 男性化와 결부된다는 發見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男兒의 경우 이들의 女性性是 동기간의 수와는 상관없이 男子 형제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Terman & Miles, 1934). 즉 男兒의 女性性是 男子 동기간의 수와 曲線的인 관계를 이루는데 本人을 제외한 男子 형제의 수가 2일 때 가장 男性的이고 男子 형제수가 그 이상 증가하면 점차 女性的이 된다(그림 3). 아들 수가 4를 넘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大家族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 父母, 특히 어머니의 溫情을 받을 기회는 점점 적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왜 男子형제수가 1이거나 0(獨男)일 때 아이가 상대적으로 女性化되느냐는 溫情만으로는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 가지 그런 가정의 특색이 있다면 딸의 수가 우세한 가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아들로 하여금 女性的으로 만드는데 모르는 일이다. 딸에서도 동기간 數가 늘어감에 따라 女性化되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에서만큼 뚜렷하지는 못했다. Terman과 Miles(1936, p. 227)는 女性性和 동기간 數간의 관계를 女性性和 年齡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에 注意를 환기시키고 있다. 年齡이 많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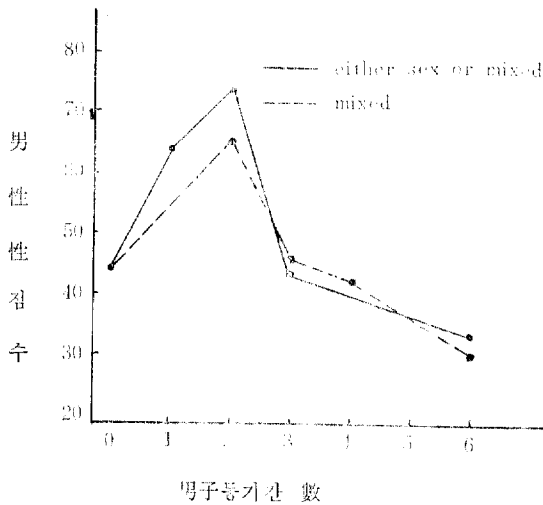


그림3. 男子동기간數에 따른 男子어린이의 女性性.
 [Terman & Miles (1936, p. 225)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그림임.]

에 따라 女性化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Constantinople, 1973). 그러나 念頭に 두어야 할 일은 溫情假說은 적어도 아들에 있어서는 女性性-동기간數간의 關係와 女性性-年齡간의 關係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大家族下에서는 어린이의 養育이 非許容의으로 된다고 하는데 (Nye, Carlson, & Garrett, 1970), 大家族下에서 養育이 冷情한 쪽으로 되어 가는지는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일이다. 어쨌든 어머니(또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의 溫情이 아들을 男性化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도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女性的인 딸의 어머니는 過保護의이라는 發見事實은 비슷한 증거를 찾기가 더욱 힘들다. 다만 女性的인 딸의 어머니가 性格檢査에서 자신을 自足하며 自信있고 個性的인 사람으로 기술한다는데 (Mussen & Rutherford, 1963) 이런 어머니일수록 자기 딸을 過保護하고 干渉하고 強壓의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연구에서 女性的인 딸들은 또 그들의 어머니를 保養的(nurturant)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딸에게서 過保護의이며 強要하는 態度가 溫情的의으로 받아드러지고 있다는 것인데 알 수가 없다.

본연구에서 일어난 결과가 一次的 同一視說이나 活動制約說이나 또는 單純히 溫情的의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닮아 간다는 立場을 모두 排斥하는 것이었으나 이 반쪽(어머니)만의 자료는 代案을 만들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다만 어머니가 아들의 男性化에서 男性的인 行動을 強化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示唆를 받는다. 溫情의 間項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正的強化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溫情的인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에 비해서 보다 많이 強化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한다. 그러면 어떤 行動을 強化했을 것인가? 勿論 男性的인 行動을 強化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強化關係가 아버지와 딸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 女性的인 딸의 아버지는 딸로 하여금 女性的의으로 행동하기를 권장한다고 한다(Mussen & Rutherford, 1963). 그러므로 男性的인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이 男性化하는 방향으로 強化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異性의 자식에게 強化를 주려면 어머니가 뚜렷한 性役割分化(sex role differentiation)을 하고 있어야 한다(Rothbart & Maccoby, 1966 참조). 즉 男兒의 男性化와 또는 女兒의 女性化에 자신의 身體的性區分에 대한 아이의 自覺을 전제로 하는 Kohlberg의 認知發達의同一視說(cognitive developmental identification theory)과는 달리, 어른의 아이性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이 해석에 의하면 아들의 男性化는 어머니의 아들行動의 差別的 強化로 이루어진다. Mowrer (1950, p. 596)가 지적했듯이 男子아이는 溫情으로 대하는 어머니를 닮으려고 하지만 곧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라는 바가 아님을 깨닫고 방향을 아버지쪽으로 돌린다. Mussen, Conger와 Kagan(1969, p. 361)은 性型化(sex typing)를 촉진시키는 조건으로 (1) 同性의 어머니가 慈愛롭고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될 것과 (2) 父母가 함께 一貫的으로 아이의 性에 符合한 行動을 強化해주고 그렇지 못한 反應들을 排斥할것,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다. 學習과 反應選擇을 區別하는 것이 좋은데(Mischel, 1971) 위의 두 조건 중에서 前者는 同一視에 의한 學習을 의미하는 것이고 後者는 強化에 의한 反應選擇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男性化에서 強化에 의한 性適切한 行動을 아이로 하여금 選擇케 하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아들은 男性的인 行動이 어떤 것이냐만이 아니라 女性的인 行動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떤 反應을 擇하는가에 따라 그는 男性的으로도 女性的으로도 될 수 있다. 이런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가 없으면 특히 중요할 것이다 (Billar, 1971). 어머니와 아들간의 관계에서 처럼 아버지도 딸에 대해서 反應選擇을 돕는 役割을 하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좀 더 설명하기 힘들다. 女性的인 딸의 어머니는 過保護的이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反應選擇을 증명하는 役割을 하기 보다는 同一視의 對象이 되어 女性的인 行動의 學習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앞서 말했듯이 女性的인 딸의 어머니는 自身에 대해서 自足하며 自信있고 個性的인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것은 딸의 눈에서 볼 때 바람직한 屬性으로 보일 것이다. 또 한편 過保護한다는 것은 強要하는 態度를 말하는 것이므로 男性的인 行動을 習得할 機會를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過保護는 딸에서 獨立心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獨立心은 男性性에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중의 하나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男子아이들의 어머니가 女子아이들의 어머니보다 더 男性的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어머니의 女性性이 아이의 性を 左右한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반대방향으로, 즉 아이의 性이 어머니의 女性性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야 한다. 아이의 性이 어머니의 女性性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機制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 아이들의 어머니 질문지의 代理記入, (2) 質同紙 기입시의 어머니의 心態(set), 그리고 (3) 아이의 性에 따른 집단 동기간(sibling)의 性構成差이다. 우선 아이의 어머니 질문지 대리기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조사시 이런 일이 있을것을 대비하여 담당교사는 대상아동에게 특별한 주의를 시켰다. 그렇지만 이것이 확실한 보장이 될 수는 없다. 대리대답의 존재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 보는 한 방

법은 아이의 女性性점수와 어머니의 女性性점수간의 상관을 보는 것이다. 兩者간에는 有意한 상관이 없었으므로 대리대답이 혹 있었다 해도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女性性水準이 같거나 비슷한 集團에서 대리대답을 했을 때는 어머니와 아이의 女性性간에 相關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대리대답이 없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자료수집 과정 자체에서 찾아야 하겠다. 들어 온 자료를 살펴보거나 단일교사가 취한 배려등을 참작해 보아 어머니자료가 학생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비록 조작된 바가 없더라도 질문지를 답하는 어머니의 心態(set)에 따라 어머니의 질문지 반응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대답할 때 男子아이의 부탁을 받고 답한 어머니는 男子 아이를 念頭に 두고 養育態度나 女性性檢査를 답하고 딸의 부탁을 받 아 어머니는 딸을 念頭に 두고 檢査에 反應한다면 그들의 女性性이 아이의 性에 의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事前刺戟이 질문지 反應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Rothbart & Maccoby, 1966).

자료가 조작되지 않아도 어머니의 女性性이 아이의 性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機制는 아이의 性에 따른 동기간 중의 男兒數의 差異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확률적으로 男學生들의 집안에서의 被驗者를 包含한 男兒數는 女學生의 집안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예상의 확증을 얻기 위해 後著자가 얻은 다른 자료를*1 토대로 各級學校 學生들의 自身을 포함한 男子 동기간數를 산출하여 男女學生間에 비교해 본 결과 中學校(서울과 地方都市의 8校)에서 男女學校 平均이 각 2.67名과 1.83名이었고 高等學校(서울과 地方都市의 8校)에서는 男女學校 平均이 2.85名과 2.11名이고 大學(서울 및 地方 6개 대학)에서는 男女學

*1 鄭範謨에게 支給된 Rockfeller財團의 研究費로 시행된 韓國에서의 男兒尊重과 家族計劃(車載浩, 鄭範謨, 및 李星珍, (1975)研究의 一環으로 수집된 자료에 입각함. 平均男子동기간數의 男女學生間 비교에 대하여는 別途로 報告할 예정임. 여기서 보고한 數字를 整理해준 韓國行動科學研究所의 洪性烈氏에게 사의를 표한다

生別로 각각 2.81名과 2.20名이었다. 이에서 분명히 男學生의 男子 동기간 數는 女學生의 男子 동기간 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男學生의 집안의 男兒의 數가 女學生의 집안의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렇게多數의 아들들을 다루는 어머니는 보다 男性化될 가능성이 있다. 불행히도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집안 男兒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相關을 직접檢證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 수가 많아지면 父母가 男性化되고 딸의 수가 많아지면 女性化한다는 증거는 있다(Terman & Miles, 1936, p. 236).

研究結果를 보아 본 연구에 사용한 養育態度 및 女性性檢査들의 信賴性이 간접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信賴도가 낮았다면 여기서 보고한 것 같은 相關關係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養育變因과 아이의 女性性간의 關係를 연구하려면 父母兩者를 동시에 對象으로 하는 것이 어느 한쪽만 대상으로 하는 때보다 여러 假說 중에서 擇一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하겠다. 또 그런 關係를 연구하는데 父母의 개개 子女에 대한 期待나 要求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父母의 男兒 또는 女兒慾求(車載浩, 鄭範謨, 및 李星珍, 1975)이다. 아버지의 男兒慾求是 딸도 아들의 代理的 滿足을 취하는 대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이런 연구에는 반드시 出生順, 子女性構成 등 家庭의 人口學的 變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李芸英. 어머니의 養育態度가 어린이의 男性—女性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家庭管理學科), 1974.
 陳渭教·金亨立. 簡便MMPI性格檢査(新刊). 서울: KTC, 1971.
 車載浩·鄭範謨·李星珍. 韓國의 男兒尊重思想. 서울: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5.
 Becker, N. 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discipline. In M. L. Hoffman and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Biller, H. B. The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father-absent boy's personality. *Merrill Palmer Quarterly*, 1971, 17, 227-241.
 Constantinople, A. Masculinity: An exception to a famous dictum? *Psychol. Bull.*, 1973, 80, 389-407.
 Gough, H. G., Chun, K., and Chung, Y.-E. Validation of the CPI femininity scale in Korea. *Psychol. Rep.*, 1968, 22, 155-160.
 Kohlberg, L.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pp. 25-55.
 Mowrer, O. H. *Learning theory and personality dynamics*. New York: Ronald Press, 1950.
 Mischel, W. *Introduction to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d, & Winston, 1971.
 Mussen, P. F., Conger, J. J., and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69.
 Mussen, P.H., and Rutherford, E.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al personality in relation to young children's sex-role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1963, 34, 589-607.
 Nye, I., Carlson, J., and Garrett, G. Family interaction, affect and stress. *J. Marriage and Family*, 1970, 32, 216-226.
 Roe, A., and Siegelman, M. A.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1963, 34, 355-369.
 Rothbart, M. K., and Maccoby, E. E.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 Per Soc. Psychol.*, 1966, 4, 237-243.
 Schaefer, E. S. A circumplex model of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 Soc. Psychol.*, 1959, 59, 226-235.
 Scars, R. R. Dependency motivation. In M.R. Jones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

- tion. Lincoln,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3. pp. 25-64.
- Sears, R. R. Development of gender role. In F. A. Beach (Ed.), *Sex and behavior*. New York: Wiley, 1965(a).
- Sears, R. R., Rau, L., and Alpert, R. *Identification and child rearing*.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b).
- Terman, L., and Miles, C. C. *Sex and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1936.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DIMENSIONS WHICH AFFECT FEMININITY IN THEIR SONS AND DAUGHTERS

WOON YONG LEE • JAE-HO CHA
Ewh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ypothesis advanced by R. R. Sears and his collaborators that restrictive child-rearing by parents leads to femininity in children was test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child-rearing attitude test given to mothers rather than by means of ratings of interview data as used by Sears and his coworkers. One hundred ninety male and 160 female, 5th and 6th graders were given an M-F test for children, and on the basis of the scores the mothers of the most masculine and the most feminine students were given a child-rearing attitude test measuring four child-rearing dimensions previously isolated from Korean mothers. Analysis of the test scores from 60 mothers of the masculine and 79 mothers of the feminine students showed that a "cold" mother is associated with a feminine boy whereas an "overprotective or domineering" mother is associated with a feminine girl. Permissiveness and emotional involvement were unrelated to child's femininity. It was concluded that at least for mothers data do not support either the primary identification hypothesis or Sears' activity-restriction hypothesis. An unexpected finding, namely that mothers of the boys were more masculine than those of the girls, was explained in terms of greater number of male siblings expected for a male student as against a female student. Evidence was presented which bore out the latter expectation.